

도봉2동 마을잡지

# 도봉:인



도봉2동 마을미디어  
[도봉:인]의 두번째 기록

# 02



발행처 도봉구

에디터 윤은경 · 김지수 · 김소연 · 이현승 · 김윤지 · 서송이 · 홍정완 · 이민지

사 진 윤은경 · 김지수 · 김소연 · 이현승 · 김윤지 · 서송이 · 홍정완 · 이민지

도움주신분들 이은지 · 양영란 · 안희경 · 하송자 · 이연아 · Elly · 원광숙 · 김충진 ·  
윤상용 · 최연희 · 윤정화 · 백경희 · 이종필 · 김석준 · 허지훈 · 한정순 ·  
배재용 · 오종욱 · 김준엽 · 조연재 · 채윤서 · 김은지

편집디자인 오브제플래닛 (objetplanet@gmail.com / 010 3472 8961)

초판 1쇄 2020년 07월 29일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수록된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봉·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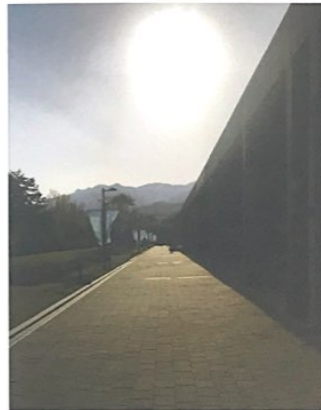


베를린 장벽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바닥에 동그란 원을 중심으로 세계 중요 도시들의 방향과 거리가 적혀있다. 그 곳에서 디노와 나는 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원 안에 들어가 세상의 중심이 된 마냥 의기양양한 포즈를 취했다. 아마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런 사진을 찍었겠지. 마치 세상의 중심에서 세계로 뿔어나가는 꿈을 꾸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다.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한때는 분열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이제는 평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처럼, 전쟁터였던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미래를

꿈꾼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만 날씨가 참 따뜻했던 2020년 어느 날, 나는 이곳에서 디노와 행복한 하루를 보내며 별 일 없이 지속되는 일상에 감사함을 느꼈다.

다시 도봉09번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입학식도 취소되고, 교복도 정식으로 입어보지 못했던 디노는 코로나 시국을 속상해했다. 그런 디노를 보며 막상 학교에 가게 되면 지금이 그리워질텐데 라는 생각에 웃음이 났다. 여하튼 코로나로 생활의 많은 것이 변했어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된다.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적응하고 생존했다. 우리도 아마 그럴겠지.

나는 코로나 블루로 지친 당신들에게 창포원 소풍을 권하고 싶다.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이어짐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감사한 것임을 느끼고 볼 수 있다면 가슴비 총만한 소풍이 되지 않을까? 아, 물론 마스크는 모두의 안녕을 위해 꼭 착용하고 가야함을 잊지 말자.



글 서송이 사진 김소연 서송이



서적이 지나치게 어렵기도 하고요. 저의 엄마도 정말 간단한 것을 몰라서 제가 핸드폰 장사를 하는 이 곳까지 한시간 반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이 동네 어르신 누구라도 핸드폰이 어려워 물어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려야겠다고요."

모두 함께 해요



그럼 사장님,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지칠 때는 없으실까요?

"물론 지칠 때도 있죠.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질문을 매일 하러 오시기도 해요. 그래도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러다 보면 천천히 하나씩 배우시니까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하나씩 배워가실 때 저도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그렇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종종 사과나 떡 등의 맛있는 음식들을 특·놓고 가시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사실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이에요. 저는 참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 것만을 나누는 데도 감사해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말입니다."

도봉 두리마을에는 참 사람사는 향기가 나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서울에서는 우습기만 한 말인 것 같은데도 어떤 지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 동네입니다.

도봉 두리마을 주민분들, 혹시 핸드폰이 어려우세요? 그럼 <율리정보통신>의 안희경 사장님과 함께 <시니어 실버, I CAN DO IT (아이캔두잇)>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받기, 문자와 카톡을 확인하거나 보내기 등 아주 쉬운 것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해주신 <시니어 실버, I CAN DO IT (아이캔두잇)> 팀에 도봉2동 주민들을 대신해 도봉.인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시니어 실버, I CAN DO IT>의 수업 풍경입니다. 뜨거운 학구열이 느껴지시나요? :)

디자인 레이아웃 이현승 글 서송이 사진 안희경